

## I. 현장상황판단 및 인명탐색

- 요구조자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요구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확인 될 때까지 탐색
- 인명검색은 탐문에 근거한 장소를 최우선으로 하되, 열·연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엄호 주수 하에 실시
- 검색이 완료된 장소는 지휘본부 보고 후 출입구 등에 표시
- 검색조를 교체 시 검색경로, 범위 및 내부 상황 등을 인계

## II. 현장진입 시

- 화재현장으로 이동할 때는 낮은 자세를 유지
- 출입문 주위는 장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
- 지하실에 소방호스 연장 시 예비호스를 계단상단부에 배치
- 지하실 출입구에 위치한 대원은 지하실 입구 1층 상황 감시

## III. 가스누출된 실내 진입 시

- 공기호흡기 착용 후 가스의 종류 및 위험범위 등을 조사
- 연기투시기, 탐조등 등은 실내 진입 전 실외에서 점등 후 현장진입
- 창 개방 및 송풍기에 의해 가스농도를 폭발한계 이하로 조치
- 진입대원 신원체크 및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예비대원 확보
- 실내로 공급되는 전원스위치 및 가스밸브 차단
- 방수복 등에 의한 정전기 발생을 막기 위해 물을 적시고 진입
- 진입 시 신체 노출이 없도록 방호 조치 철저히
- 폭발에 대비하여 위험구역 및 경계구역을 설정, 일반인 접근 통제

#### IV. 인명검색 시

-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발화건물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경우 절대 진입 금지
- 역화(Back draft)에 대비하여 적절한 배연 후 진입 시도
- 항상 공기호흡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보호복 착용
- 항상 팀을 지어서(2인 1조) 활동하여야 하며, 지속적인 연락유지
- 실내 입구에 표시를 하고, 방안 진입 시 회전방향 기억
- 문을 개방하기 전에 손등으로 문을 만져 열기를 확인
-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벽을 따라서 이동
- 뜨거운 부분과 약해진 부분은 조심
- 화재확대 가능성이 없을 시 창문을 개방하여 열과 연기를 배출
- 방향을 잃었다면 벽을 따라 처음의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
- 투입된 모든 대원을 위한 2차 대피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
- 발화층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든지 방수 할 수 있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함

#### V. 구조장비 선택 및 활용 시

- 조작이 간단한 것, 확실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, 위험이 적은 안전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선택
- 무거운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튼튼하게 고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
- 현장 전체의 상황을 확인. 가동 범위내의 안전 상황, 반대 측 상황, 오작동에 의한 위험성 등에 유의
- 장비의 작동에 의한 반작용 등 2차 재해에 주의
- 현장 진입 시 개인용 로프 휴대

## I. 현장지휘관

- 현장도착과 동시에 건축물의 붕괴 및 낙하 위험성 등 반드시 현장 안전평가 선행 후 대응방법 결정(현장안전평가)
- 관계자 등으로부터 종합적 정보를 취득 대원과 요구조자 안전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(정확한 상황판단)
  - 현장활동대원과 안전확보요원으로 구분하여 임무부여
  - 개인안전장비 착용상태 대원 상호간 교차점검, 현장안전점검관 확인점검, 지휘관의 최종점검 등 3단계를 거쳐 철저한 관리
- 경계구역 설정(Fire-Line 등 안전선 설치) 일반인의 출입 차단
  - 유독가스 누출 및 폭발 또는 건물붕괴 등 대량피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인근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및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 경계요원 배치 주변 교통통제 및 통행차단
- 방사성물질이나 독극물의 누출, 기타 특이한 사고 발생시 독단적인 판단으로 활동하지 말고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, 유경험자 등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(현장 및 유관 관계자의 활용)

## II. 현장안전 점검관

-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 현장지휘관 보좌
- 대원들의 안전장비 착용 및 건강상태 등 대원 안전관리상태 점검
- 현장 활동사항 수시 모니터링, 필요한 안전조치 지휘관에게 즉각 보고(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)
  - 기상악화, 급물살, 지진 등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인 구조방법 변경 등 선조치 후 보고

### Ⅲ. 현장 활동대원

- 안전관리는 대원 각자의 자기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 평소 체력·정신력·담력·기술연마에 노력(자기관리 철저)
- 현장활동에 임할 때 자의적인 행동 금지, 반드시 지휘관 명령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. 단, 급박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
-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 원칙으로 하고 현장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금지
- 현장활동시에는 반드시 헬멧, 안전화, 안전장갑(화재현장에서는 공기호흡기, 방화두건, 방화복, 보조호흡기 및 인명구조경보기 추가)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

## I. 일반구조

유형	표준지침
구조 일반	<p>◇ 활동환경이 열악하고 행동장애가 많아 2차적인 재해발생에 의한 대원의 부상 위험성이 높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비의 정확한 작동방법과 제원, 성능을 파악하고 취급</li> <li>○ 로프가 지나친 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지지물 파손 등에 의한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한 장소 선정</li> <li>○ 현장에 설치한 로프나 와이어, 유압호스 등에 대원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·정돈 철저. 특히, 야간에는 조명기구설치</li> <li>○ 장시간 활동 전개 시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부상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시간 작업자는 교대할 수 있도록 조치</li> </ul>
교통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장에서는 흘러나온 유류 등으로 인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흡착포, 모래 등을 뿌리고 작업 개시</li> <li>○ 차량 받침목 등으로 최대한 안정화, 고정화 조치 후 작업 실시</li> <li>○ 날카로운 부분은 보호조치하고, 차량 잔해물은 안전하게 제거</li> <li>○ 로프 등으로 활동구역(Fire-Line 등)을 설정하고 사고차량 고정</li> <li>○ 엔진정지, 배터리 단자 제거조치를 하고 가자재의 불꽃에 유의</li> <li>○ 화물차의 경우 불안정한 적재물의 사전제거, 고정 등 확실한 조치</li> <li>○ 원치 등의 장비 설치시 2차 사고 예방 위해 안전한 장소 선정</li> <li>○ 하이브리드(전기)차량 등에 접근 시 절연장갑 등 완전한 보호 장구와 전면형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활동하며 안전플러그를 제거한다.</li> </ul>
맨홀, 지하탱크, 정화조 사고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밀폐된 공간에는 반드시 유독가스나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하며, 산소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가스측정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측정 후 활동</li> <li>○ 탈출구와 활동공간이 협소함으로 공기호흡기 사용한계시간 준수</li> </ul>

<p><b>맨홀, 지하탱크, 정화조 사고 등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독면을 착용하고 진입해서는 안 됨. 방독면은 몇 가지 적층 가스에만 유효하기 때문</li> <li>○ 도장작업 중이거나 위험물 탱크는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등으로 신선한 공기를 불러 넣은 후 작업 개시</li> <li>○ 익사할 가능성에 유의</li> <li>○ 녹슬거나 삭은 계단 및 손잡이, 미끄러운 벽면에 유의</li> <li>○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되, 반드시 방폭 조명기구 사용</li> <li>○ 충분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공급</li> </ul>
<p><b>엘리베이터 사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갑자기 작동할 수 있으므로 스위치 임의조작 금지</li> <li>○ 항상 추락, 낙하물, 감전의 위험이 상존함을 인지</li> <li>○ 엘리베이터와 건물에 한 다리씩 걸치고 서 있는 행위 금지</li> <li>○ 화재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화재층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, 해당 층을 누르기 전에 2·3층을 눌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</li> <li>○ 화재층 아래 2개층 이상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진입</li> <li>○ 엘리베이터 탑승 전 반드시 개인안전장비 100% 착용</li> </ul>
<p><b>전기관계 사고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력차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전 중인 것으로 가정하고 행동</li> <li>○ 절연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며 스위치 등 노출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○ 옥외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전선은 통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력회사의 직원에게 전원을 차단시킨 후 행동</li> <li>○ 통전상태에 있는 요구조자는 전원을 차단한 후 구조, 긴급한 경우는 내전의 성능범위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여 행동</li> <li>○ 침수된 변전실에서 구조활동을 할 경우는 먼저 전력회사 직원을 통하여 개폐기 등 전원차단 확인</li> <li>○ 전선을 함부로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, 부득이 절단 시 한선 한선 따로 절단 한다.</li> <li>○ 고압선 주변에서 사다리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다리 또는 작업 중인 대원이 전선에 접촉할 위험이 있으므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력회사에 송전 정지를 요청하고, 사다리 위의 대원과 기관원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 전선과 안전거리를 두고 활동</li> </ul> </li> </ul>

## II. 화재현장 인명구조

유형	표준지침
일반 건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명구조활동 전개</li> <li>○ 지휘자의 명령 하에 행동하며 단독행동 금지</li> <li>○ 급기측을 진입구로 설정 원칙(계단식 복도, 문, 창 등을 진입구로 확보)</li> <li>○ 화재진압 완료 후에 인명검색 철저 및 잔화정리 철저</li> <li>○ 화재지점 상층 내부 연기질식 대비 인명검색 실시</li> </ul>
고층 건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단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폐쇄하여 연기차단 및 피난경로 확보</li> <li>○ 건물자체에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등 소방용 설비 유효하게 활용</li> <li>○ 화점 직하층에 활동거점을 설정하고, 필요한 기자재 집결</li> </ul>
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불꽃을 발생시키는 구조장비 사용 자제, 유압장비 사용</li> <li>○ 적어도 100m(야간시 200m) 전에 사고표지판을 설치,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유도요원 반드시 배치</li> <li>○ 위해요인 적재여부 확인 및 엔진 정지 후 작업 실시</li> </ul>
지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층 화재진압시 비상구개방 확인</li> <li>○ 좁은 계단으로 진입 시 필수요원 만 진입</li> </ul>
산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급경사, 골짜기, 강한바람, 구르는 바위, 쓰러지는 나무 등에 주의</li> <li>○ 바람을 등지고 불길이 약한 쪽으로 접근하며, 풍하측 및 경사면 위쪽 등 연소 확대 방향은 피한다.</li> <li>○ 불길에 휩싸인 경우 암석지대, 개울, 움푹 파인 곳, 이미 불탄 곳으로 대피</li> <li>○ 소화활동 시에는 퇴로를 반드시 확보하며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</li> </ul>
유류 (위험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서는 높은 곳, 풍상 또는 풍횡으로 실시</li> <li>○ 인접건물 연소방지 및 하천·하수구 등에의 위험물 유입을 방지</li> <li>○ 폭발위험 존재시 안전거리 확보하며 활동하고 관계자도 경계선 안으로 진입 통제</li> <li>○ 가스 측정기를 통해 가스누출 검측을 선행시켜 폭발 위험성을 확인하고 진입</li> </ul>

### Ⅲ. 각종 파괴활동 구조

유형	표준지침
파괴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층 파괴 시 낙하물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지상과 긴밀한 연락 유지 및 경계구역 설치</li> <li>○ 사다리 위에서 파괴 시 파괴부분이 안면보다 아랫부분 파괴</li> <li>○ 방진안경, 헬멧후드를 활용하고 파편비산에 의한 부상 방지</li> <li>○ 창유리 파괴시에 신체를 창 측면에 위치</li> </ul>
문잠금 해체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 개방시는 문의 측면에 위치해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개방</li> <li>○ 가열된 철제문은 주수에 의한 증기발생에 주의 헬멧후드 착용</li> </ul>
유리 파괴	<p>&lt; 보통 얇은 판유리(두께 5mm 이하)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리의 상부에서 조금씩 파괴(파편 및 비상이 적음)</li> <li>○ 유리에 접착테이프, 모포 등을 붙여서 외부로의 비산을 방지</li> <li>○ 진입로가 되는 창은 창틀에 잔존하는 유리파편을 완전히 제거</li> </ul> <p>&lt; 두꺼운 판유리(6mm 이상)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두께가 불명확한 경우 1차로 가볍게 치고 유리에서 받은 반동력으로부터 파괴에 필요한 충격력의 배분 고려</li> <li>○ 12mm 이상의 두꺼운 판유리는 가스절단기 또는 용접기로 급속 가열한 직후에 주수냉각을 실시해 열 파열이 생기게 해서 파괴</li> </ul> <p>&lt; 맞춤유리(합성유리)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머로 유리를 잘게 파괴한 후 깨진 금에 칼 등을 넣어서 플라스틱 막을 절단 또는 가스절단기, 산소용접기 등으로 가열해서 절단</li> <li>○ 강화유리는 내충격력이 강하므로 예리한 도끼 등으로 파괴</li> </ul>
천정 파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긴급파괴 시 이외는 전기배선의 스위치를 확인하고 실시</li> <li>○ 회반죽(모르타르) 도장 천장은 낙하에 주의하고 방진안경을 착용</li> <li>○ 천정파괴는 원칙적으로 방의 구석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</li> </ul>

#### IV. 건물 공작물 구조

유형	표준지침
<p>공통 사항</p>	<p>◇ 건물 부대시설 또는 공작물 사고는 작업위치도 불안정하고 장소도 협소하여 활동상 장애가 많고 대원의 2차적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코니, 베란다 등은 외관상 견고하게 보여도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입 전에 갈고리 등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연장한 사다리를 흔들어서 강도를 확인</li> <li>○ 철제 트랩 등은 부식 우려가 있어 한 계단씩 강도를 확인 진입 - 무거운 장비를 휴대한 경우 가급적 다른 통로를 이용</li> <li>○ 로프 확보지점으로 활용하는 창틀과 기둥 등은 결속하기 전에 강도를 확인(로프의 경유점은 2개소 이상)</li> <li>○ 작업장소가 높고 협소한 경우 장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활동공간 확보</li> </ul>
<p>높은곳에서의 활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높은 곳에서 활동할 때는 대원이 떨어지거나 파괴물 등의 낙하에 대원의 부상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로프를 걸착 낙하를 방지하고 아래쪽에는 출입을 규제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</li> </ul>
<p>지하 공작물</p>	<p>◇ 일반적으로 어둡고 협소하여 힘들고 큰 장비는 활용곤란</p> <p>◇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독물질에 대비 호흡보호에 만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좁고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갈고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안전 확인</li> <li>○ 폐쇄된 지하공간으로 진입할 때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를 착용</li> </ul>

## V. 수난 구조

유형	표준지침
<p>육상에서의 구조</p>	<p>◇연안·하천가·교량하부 등에서 사고가 발생 시 구조할 수 있는 거점이 불안정하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다리차를 활용하여 구조할 경우는 회전등에 의해 대원이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<b>평탄하고 지반의 견고한 장소 선정</b></li> <li>○ 물속에는 금속 등의 위험한 물품과 부유물 등 장애물이 있으므로 맨발로 입수하지 않는다.</li> <li>○ 익수된 요구조자에 대한 접근은 구명자켓 또는 부환에 확보로 프 연결 안전을 확보한 후 <b>후면으로부터 신중히 접근,</b></li> </ul>
<p>선상 구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승선하는 대원은 <b>활동이 용이한 잠수복 등 적절한 복장 착용</b></li> <li>○ 물살이 새거나 급류현상을 보일시 접근을 금지하며 완만한 곳으로 돌아서 접근</li> <li>○ 승선 중 이동할 때는 <b>자세를 낮추어</b> 물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○ 구조현장 상황이 열악하고 사망추정 실종자 수색 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무리한 구조활동 자제</li> </ul>
<p>수중 구조</p>	<p>수중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잠수에 앞서 <b>잠수계획을 수립하고 그 한계 내에서 잠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조대원은 충분한 잠수교육 및 수준유지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.</li> <li>○ 절대 혼자 잠수 활동을 하지 않는다.(2인 1조 짝 시스템)</li> <li>○ SCUBA 잠수를 하는 동안 절대로 숨을 참지 않는다.</li> <li>○ 능력한도 내에서 잠수하며, 감압이 필요한 잠수는 절대 하지 않음</li> <li>○ 일반적으로 1일 3회(1인)이상 및 수심30m 이하로 잠수하지 않는다. (자신이 내뿜은 공기방울보다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다.)</li> <li>○ 수중구조 시 육상과 줄신호를 주기적으로 주고 받아 구조상황 전파 및 대원 안전 확보</li> <li>○ 상승속도는 1분당 9m가(1초당 15cm) 넘지 않도록 한다.</li> </ul>

유형	표준지침
수중 구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 잠수 후 상승도중 수심 5~6m지점에서 안전정지 3~5분간 실시</li> <li>○ 상승할 때는 위에 지나가는 배나 다른 장애물들이 없나 살피며 천천히 상승한다.</li> <li>○ 일반적인 수중구조 활동시 공기통 속의 공기가 50kg/cm<sup>2</sup>(700psi) 정도 남으면 상승하기 시작하며 잠수 활동 후 약간의 공기는 항상 남겨 두도록 한다.</li> <li>○ 얼음 밑 잠수 및 폐쇄공간 수중구조 활동시 공기통 속의 잔압은 싱글실린더 1/3법칙, 더블 실린더 1/6법칙을 준수하며 안전로프, 수중 릴 등을 이용하여 입.출수 지점을 숙지한다.</li> <li>○ 얼음 밑 잠수 등 수중에서 호흡조절기가 동결 될 경우 비상호흡을 하면서 출수 한다.</li> <li>○ 얼음 밑 잠수 활동시 영하 15℃ 이하 및 수심20m 이하, 거리 30m 이상에서는 잠수 활동을 금지한다.</li> <li>○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수 후 비행기 탑승 대기시간을 준수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압이 불필요한 잠수 후 → 12시간 후에 탑승</li> <li>- 감압이 필요한 잠수 후 → 24시간 후에 탑승</li> <li>- 3일 이상 연속 잠수 후 → 24시간 후에 탑승</li> </ul> </li> <li>○ 돌이나 흙탕물이 같이 쓸려 내려와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수중구조 활동은 하지 않는다. (부유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우려)</li> </ul>

## VI. 산악구조

유형	표준지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통 사항</b></p>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산악지역 구조활동은 장시간, 장거리 활동으로 체력소모가 많으며 급경사면이나 수풀, 계곡 등 위험요인 상존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산길을 선행 대원은 후속 대원에게 낙석, 붕괴, 낙하 등 위험을 고지 - 수풀에서 행동할 때에는 보호안경 반드시 착용</li> <li>○ 지지점으로 활용할 나무나 바위 등은 강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2개소 이상의 지지점을 확보</li> <li>○ 장시간 활동할 경우는 휴식과 교대를 번갈아 하여 피로경감</li> <li>○ 급경사면의 구조 시 헬멧 등을 장착하고 위쪽에 주의하면서 행동 - 또한 낙석이 발생한 때는 큰소리로 아래쪽의 대원에게 알리고 경사면의 직하를 피해 횡방향으로 대피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여름 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시간 활동할 경우 열사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공급</li> <li>○ 독사, 곤충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출부가 없도록 주의</li> <li>○ 손에 땀을 자주 닦아 미끄럼 방지에 주의하며, 경사면의 위아래 대원이 있는 경우 상호 안전을 확보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겨울 산</b></p>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적설과 결빙으로 활동 중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기상조건을 충분히 고려 행동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눈이 얼어붙은 등산길에는 크램푼(아이젠) 등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고, 상황에 따라서는 대원 상호간 로프를 확보 유지</li> <li>○ 방한복, 식량, 개인장비 등을 준비하고 대원의 체력을 고려한 보행속도를 유지하여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○ 보폭을 작게 하여 넘어지거나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</li> <li>○ 눈 쌓인 경사면에서 행동할 경우 경사면 전반을 보는 위치에 감시원을 배치 - 감시원은 눈이 무너질 위험을 확인하면 경적 등으로 알려 항상 횡 방향으로 퇴로를 확보</li> </ul>

## VII. 특수구조

유형	표준지침
항공기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항 내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공항 관계자 유도에 따라서 진입, 화재발생 위험을 예측하여 풍상, 풍횡 측으로 부서함을 원칙</li> <li>○ 엔진이 가동 중인 기체에 접근 할 때는 급·배기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체에 횡으로 접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경우 기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객기의 경우 엔진꼬리 부근에서 약 50m, 공기 입구에서 약 1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</li> </ul> </li> <li>○ 누출되어 있는 연료와 윤활유가 연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복, 보호장구 등으로 신체를 보호</li> </ul>
토사 붕괴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◇ 구조활동 중 재붕괴의 우려가 크고 작업이 진척되지 않아 장시간 걸리기는 등 2차적인 위험요인 상존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사 제거 시 2차 붕괴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재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는 말뚝 및 방수시트 등으로 안전을 확보</li> <li>○ 반드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2차적인 토사붕괴 발생에 대비해 토사 붕괴 방향과 직각의 방향에서 퇴로를 확보</li> <li>○ 일정시간을 정해 진압대원을 정기적으로 교체, 인접 구조대 등에 응원을 요청 교체대원 확보</li> </ul>
폭발 사고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◇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건물, 공작물 등이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재붕괴 등 2차적인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붕괴된 지붕, 기둥, 교량 등은 갈고리 등으로 강도를 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붕괴위험이 있는 기둥 진입하기 전에 제거 또는 로프로 고정</li> </ul> </li> <li>○ 2차 폭발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인화방지 조치 및 가스의 희석·배출 등 안전조치</li> </ul>

유형	표준지침
원전 사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원은 옥소제를 복용하고, 필름뱃지에 이름표 부착</li> <li>○ 현장 투입대원은 방사능보호복 및 측정장비 등 안전장비를 갖춘 후 인명구조 활동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선량계를 바깥가운의 목 부위 부착하여 오염방지</li> <li>- 오염 및 부분오염지역 진입 시 2대 이상의 선량계 사용하여 측정, 안전성 확인 후 진입여부 판단</li> <li>- 대원의 피폭선량 최소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총피폭선량(누적 피폭선량)을 지속적으로 관리</li> </ul> </li> <li>○ 오염지역(Hot Zone)은 방사능보호복 및 Level A 보호복 착용</li> <li>○ 위험구역 체류시간을 제한하고 손상 또는 누출이 있는 용기에는 직접 접촉금지</li> <li>○ 사용한 물은 오염된 것이므로 밀봉된 컨테이너에 저장 처리</li> </ul>
화학 테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독성 및 농도에 따라 적절한 대원 방호(C → B → A급)</li> <li>○ 진화, 제염, 제독에 따른 오수(汚水)가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(회석에 의해 유해성이 상실될 수 있는 적은 양은 제외)</li> <li>○ 바람 부는 반대방향 또는 높은 곳으로 주민대피 유도</li> <li>○ 현장활동 대원뿐 아니라 장비에 대해서도 제염·제독</li> </ul>
생활 방사선 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고접수 및 현장도착시 가능한 상세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원자력위원회 등 주관·유관기관에 통보</li> <li>○ 현장 투입대원은 방사능보호복 및 측정장비 등 안전장비를 갖춘 후 인명구조 활동 및 검측 실시</li> <li>○ 경찰 통제구역, 통제선(P.L), 소방 경계구역(F.L) 설치는 합동현장지휘소에서 상황 판단회의 실시후 설치·운영</li> <li>○ 개인선량계, 탐지장비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밀봉(랩, 비닐 등)</li> <li>○ 작용제, 오염농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일정거리 유지 접근</li> <li>○ 2차 오염방지를 위한 오염지역 출발시 비닐카펫 등 설치후 출입</li> <li>○ 모든 현장활동은 비디오 영상촬영, 노트북에 시간대별 활동상황 기록</li> </ul>

